

# 전남 전통주 생산량 전국 1위에도 출고액은 3위

### 2022년 기준 출고량 4천317kl...출고액 198억9천만원 전남연구원 "저알코올·프리미엄화 등 전통주산업 육성해야"

전남지역 전통주 출고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고 금액은 전국 3위에 그치면서 탁주 위주의 전남도 전통주 사업의 프리미엄화 등 관련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31일 전남연구원이 발간한 'JN1 인포그래픽-전남도 전통주가 온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남의 전통주 출고량은 4천317kl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같은 해 전남지역 전통주 출고 금액

은 198억9천600만원으로 강원(345억9천500만원), 전북(257억3천400만원)에 이어 3위에 머물렀다. 전남의 대표 전통주는 우리술품평회 입상작(2012-2023년) 16종, 무형유산 2종, 식품명인 1종 등 총 19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선정된 전남 양조장은 올해 기준 5곳으로 나주 다도참주, 담양 추성고을, 장성 청산복수, 진도 대대로영농조합법인, 해남 해창주조장

등이다. 올해 3월 발표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23년도 주류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탁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청주·약주 등 전통주 4종의 주종별 음용 추이를 확인한 결과, 탁주가 2017년부터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매년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류식 소주는 4개 주종 가운데 비교적 낮은 순위였으나 2021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에는 음용 비율 18.8%를 기록, 2위인 과실주(19.2%)에 근접했다. 운영석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통주의 주원료인 미곡은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미곡 생산량의 19.9%를 차지하는 전남의 대표 농산물이며 전통주 산업은 미곡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탁주 위주의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다

양한 향과 맛, 저알코올, 프리미엄화 등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을 통해 전남 전통주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부연구위원은 "양조장 지원과 홍보가 가능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양조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신청 절차 전반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서원기자

### 광주 승강기사업자 29곳 정기 점검 시, 등록기준 준수·관리대수 등 확인

광주시는 31일 "11월4일부터 28일까지 지역 승강기 사업자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의 내실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를 독려하고 승강기 사업자의 허위·형식적 자체 점검과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고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광주시에 등록된 29개 승강기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별 현황을 임의로 선정, 2인 이상 점검 여부 등 실제 점검 현황을 CCTV 등을 통해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제조업의 경우 승강기 부품 인증 사항, 등록 기준 준수,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 주기, 가격 공시 여부 등이다. 유지관리업의 경우는 공동도급 기준 준수, 중대 고장 통보 누락, 매월 정기 점검 점검표 작성 실태, 관리대수 초과 유지관리 대행, 무자격자 승강기 점검 여부 등이다.

광주시는 실태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광주지역에 설치된 승강기는 총 2만5천57대(승객용 2만4천68대, 화물용 375대, 자동차용 244대)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승강기는 생활안전과 직결된 시설이므로 시민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재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홈클래스' 개관식. 31일 광주 북구 일곡중학교에서 열린 '홈클래스' 개관식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이 전선 광주시교육감, 교직원, 학생 등 참석자들이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홈클래스'란 유유교실을 개편해 재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활용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이다. <광주북구 제공>

## 광주시, 가을철 산불 예방 총력전

### 내달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광주시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활동에 총력전을 펼친다. 이 기간 동안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7개 기관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 초동 진화 체계 강화 등 산불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10년 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8-9건이 봄철에 집중됐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여건 악화로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대형화함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 긴장을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광주시는 산불 지상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전문진화대 등 71명을 선발하고 진화차·등짐펌프·무전기 등 산불 진화 장비를 사전 정비해 초동 진화 태세를 갖췄다. 또 무등산과 금당산 등 도심 주요 산 8곳에 설치된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를 점검·정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취약지 76곳과 주요 등산로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해 산불 감시를 강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버스) 내부 모니터와 도심 내 대형 전광판을 활용

산불 조심 홍보 영상을 지속적으로 송출한다. 산림 인접지 주변의 논·밭두렁 및 각종 농산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금지하는 안내판 600개를 자치구에 배부·설치,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광주시는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해 광주시 소방헬기(1대), 산림청 헬기(영양항공관리소 3대), 전남도 임차헬기(9대)와 공중진화체계도 구축했다. 또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법경찰관 및 관할 경찰 등과 협력해 산불을 조사하고 가해자 검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선강기자

## 친환경 과수·채소 품목 다양화 지원

### 광양·담양·해남·영광 선정...도, 개소당 10억 투입

전남도는 31일 "2025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광양시·담양군·해남군·영광군 등 4개 시·군을 선정, 총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생산에 어려움이 많은 과수·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비 이외 품목으로 다양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했다. 올해까지 40개소에 시설하우스, 친환경 전처리시설 및 작업장, 저온저장시설 등 165억원을 지원했다.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시·군에서 사

업 대상자를 접수, 사업 계획 적정성과 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광양시·담양군·해남군·영광군 등 4개 시·군을 선정, 총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생산에 어려움이 많은 과수·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비 이외 품목으로 다양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했다. 올해까지 40개소에 시설하우스, 친환경 전처리시설 및 작업장, 저온저장시설 등 165억원을 지원했다.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시·군에서 사

## '전남 우수 농식품 품평회' 성료

### 도농기원, 판로 확대 모색

전남도농업기술원은 31일 "전남 농식품 판로 확대를 위해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43개소, 유통처별 구매 MD 22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우수 농식품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품평회는 2021년부터 4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새로운 유통처 발굴과 전남의 우수 농식품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남지역 특화 품목과 차류 등 100여종의 제품 전시와 GS리테일, Y마트 등 유통처 MD들이 참여해 1대1 멘토링으로 품평회를 통해 신규 입점 37건(6개

유통처, 20개 업체)이 확정됐으며 이들 업체는 조율 과정을 거쳐 신규 유통처에 입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품평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영체는 실질적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시범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흑하랑, 강황 유제품 등 다양한 가공제품도 유통처 MD에게 선보여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행란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유통처와의 접근이 어려웠던 전남 농식품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시·군 특화 상품 특성에 맞는 유통처 발굴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